

기고

리튬이온배터리, 편리함 속의 불씨를 경계하자

최근 개인용 이동장치(PM) 보급이 늘어나면서 리튬이온배터리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전동스쿠터 배터리 화재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여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지난 7월, 나주 노안면에서 트럭에 적재된 드론용 리튬이온 배터리 팩이 고온·밀폐된 보관환경 속에서 '열폭주' 현상을 일으켜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빠른 초기 진화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지만 이처럼 리튬이온배터리 화재는 특정 상황에 국한되지 않고 가정과 길거리 등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

리튬이온배터리는 높은 에너지 밀도, 가벼운 무게, 충·방전 효율성이 뛰어나 휴대용 전자기기를 비롯한 다양한 제품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장점 뒤에는 과충전, 외부충격, 부적절한 보관으로 사용 시 화재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숨어 있다

리튬이온배터리는 일상 가까이에 편리함을 주지만 동시에 결코 가볍지 않은 위험성도 함께 존재한다. 지난 5년간(2020~2024) 전국에서 발생한 배터리 관련 화재는 총 678건에 달하며 이 중 전동 킥보드 485건(77.3%)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매년 사건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KC 인증 정품 충전기 사용 - 인증되지 않은 저가 충전기 사용은 위험을 키운다
2. 충전 관리 - 충전 완료되면 즉시 플러그 뽑아 전원을 차단해야 한다.
3. 충전 장소 - 통풍이 잘되고 주변에 가연성 물질이 없는 장소에서 충전한다. ※현관문, 비상구 근처 충전금지(화재 시 대피로 확보를 위한)
4. 외부 충격 주의 - 배터리를 떨어뜨리거나 임의 개조·수리하지 않는다
5. 안전한 보관 - 직사광선과 습기를 피하고 서늘한 곳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리튬이온배터리 화재는 예방이 가능하다. 작은 부주의가 가정과 이웃의 안전을 위협하는 큰 불씨로 번지지 않도록 시민들의 안전의식과 올바른 사용 습관이 중요하다.

"안전은 선택이 아닌 생활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약속을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나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박시하

육순이 넘는 나이에 꼭 가고 싶은 곳이 세계 4번째 관광대국인 튀르키예이다. 게다가 우리와 형제국이라고 알려져 있고, 무엇보다 '튀르키예' 하면 생각나는 것이 6.25 한국전쟁 때 1만 5천 명이 파병하여 자유 대한민국을 구해준 혈맹이기 때문이다. 근래에는 열기구 체험과 종교, 역사 문화 탐방을 위해 다수 한국인이 나들이하고 있다.

칼럼

이동환 AOU대학교 전 교수



튀르키예의 놀라운 문화 체험

이러한 사람들의 여행은 비루한 일상을 뒤로하고 다가오는 삶을 윤택하게 하는 가치 있는 체험 같기도 하다. 잠시 해외 탈출은 일상을 새롭게 하고 이색적인 문화를 체험함으로써 새로운 내적 평화를 가질 수 있다.

필자는 약 9일 동안 심포 있는 여행 동선을 구상해 보았다. 어차피 패키지로 갈 것이라면, 그들이 제시한 탐방코스를 참작하여 사전에 여행지의 역사적 명소를 작성하고, 가볍게 그 나라 사람들과 인사 정도 할 수 있는 언어 표현도 익혔다.

여행 계획은 이스탄불에 도착하여 국내선 비행기로 카파도키아(괴레메), 안탈리아, 올림포스, 파묵칼레, 에페소를 거쳐 이즈미르에서 비행기로 최종 출발지점인 이스탄불로 다시 도착하는 과정이었다.

여행 코스 중에 정말 놀라운 종교, 역사, 문화유적을 간단명료하게 소개한다.

첫째, 카파도키아 열기구 승구(昇球)이다. 아침 일찍 밥을 먹고 열기구 체험장으로 갔다. 현장에 도착하니 이미 운영자들이 수수, 헬륨으로 불을 불어 부풀어 오르도록 작업하고 있었다. 함께 탈 일행들은 긴장과 기대를 담은 눈빛으로 신기한 듯 보고 있었고, 나 자신도 마치 모험을 떠나기 전의 탐험가처럼 심장이 두근거렸다.

열기구에 탑승하여 올라가는 시비한 감각은 아직도 생생하다. 머리 위에서 들

려오는 불꽃 소리에 점점 가볍게 떠오르는 네모진 바구니의 움직임, 조금씩 넓어지는 시야,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가을 하늘로 서서히 올라갈 때, 마치 내가 새가 되어 날아가는 것 같았다. 아래로 가을이 끝난 농촌 풍경, 온갖 기묘한 바위가 펼쳐지고, 멀리 보이는 산 위로 떠도는 다른 열기구의 모습이 마치 밤하늘에 떠 있는 행성처럼 멋진 장관을 연출했다. 땅에서 보는 열기구들의 풍경이 정말이고 친근하다면,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마치 그림 속 세상에 들어온 듯 장엄하다. 아마도 '공중에 뜬 바구니 속 배트맨!'이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둘째, 카파도키아의 파사바 계곡 암굴 교회이다. 이 계곡을 '수도사의 골짜기', '은둔자의 골짜기'로 부르기도 한다. 수도사들이 4세기경 로마제국의 기독교 박해를 피해 이곳에 이 교회를 만들었는데, 30여 개의 암굴 교회를 만들어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자연과 교감하며 공동체 생활했다. 암굴은 화산재가 굳어져 만들어진 오페르암으로 높은 절벽에 굴을 쉽게 팔 수 있어 피난처이자 기도처가 되어 준 것이다.

암굴 교회의 특징은 자연 지형을 이용

한 석조교회는 것과 비잔틴 양식의 벽화와 예술이라는 것, 그리고 비밀 통로와 방어 기능까지 갖춰져 있다는 점이 특이어서 소중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셋째 데린쿠유(Derinkuyu)의 지하도시이다. 카파도키아 지역에 있는 데린쿠유 지하도시는 세계에서 가장 신비롭고 경외심(敬畏心)을 일으키는 고대 유적이며, 기원전 8~7세기 히타이트 민족이 처음 만든 것으로 추정한다. 데린쿠유는 '깊은 웅덩이'라는 뜻으로 내부 통로와 52개의 공기 환풍구가 지하 각층으로 연결되어 있고, 교회와 학교를 비롯해, 침실, 부엌, 우물, 화장실 등이 있다.

이 굴의 특징은 둥근 돌덩이를 통로마다 비치해 비상시 통로를 막았고, 독특한 기호로 길을 표시해 외부에서 침입한 자가 길을 잃도록 미로(迷路)처럼 여러 갈래의 통로로 되어 있어 혼자서 돌아보기는 어렵다고 한다.

1963년에 발견된 이곳은 지하 깊이 85m, 지하 8층으로 되어 있으며, 약 2만 명이 거주할 수 있다. 로마 시대와 비잔틴 시대를 거치면서 아랍-비잔틴 전쟁(780), 그리고 14세기 티무르 몽골 침략 때도 피난처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현재

이 지하도시는 절반 정도 관광객들에게 공개하고 있지만, 이 지역 근처에 아직도 발견되지 않는 지하도시가 30개 정도 있다고 한다.

넷째, 이스탄불의 종교적 건축물이다. 이스탄불에서 꼭 가봐야 하는 종교적 건축물 2가지가 아야 소피아라고도 불리는 '성 소피아 성당'과 술탄 아흐메드 모스크이다. '아야 소피아'라는 말에서 '아야'는 튀르키예어로 성스러운 뜻이며, '술탄'은 황제, '모스크'는 예배당이라는 뜻이다.

아야 소피아는 세계에서 가장 손꼽히는 동로마 제국의 건축물 중 하나이다. 내부는 모자이크와 대리석 기둥으로 장식되어 있어 높은 예술적 가치를 갖고 있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는 "솔로니! 내가 그대를 이겼다."라는 말로 아야 소피아의 아름다움을 표현했다고 한다.

술탄 아흐메드 모스크는 튀르키예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중 하나로 손꼽히는 곳이다. 오스만 제국의 제14대 술탄 아흐메드 1세의 지시로 1609년 착공을 시작해 1616년 완공했다. 아야소피아 성당의 건축 양식을 모방하고 발전시킨 것이다. 개인적으로 외관은 블루 모스크가 멋지고 내부는 아야 소피아가 멋진 것 같다.

이번 튀르키예 여행을 통해서 이 나라의 문화적 가치, 위대성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열기구를 통해 하늘을 날았고, 옛 오스만 튀르키인이 되어 성당과 모스크의 뒤바뀔을 알았고, 땅 아래 지하도시를 걸으며 지하의 세계를 이해하였다. 그야말로 체험을 통해 천지인(天地人)을 깨닫고 누비며, 이색적인 여행을 즐기기에 가장 안성맞춤이었다.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운세 2025년 9월 24일 수요일 (음력 8월 3일)

| | | |
|-----------------------------------------------------------------------------------------------------------------------------------|-----------------------------------------------------------------------------------------------------------------------------------|---------------------------------------------------------------------------------------------------------------------------------------|
| <p>48년생 급하게하는 결정은 배가 된다. 60년생 충추고 노래하는 경사를 맞이 한다. 72년생 못한다 거절로 원망을 들어보자. 84년생 성취감과 보람 하늘에 달아진다. 96년생 나라를 구한듯 무용담이 펼쳐진다.</p> | <p>49년생 근사하고 맛있는 재물이 생겨난다. 61년생 빛바랜 사진들 추억을 더듬어보자. 73년생 거래 이전에 신뢰부터 쌓아보자. 85년생 꺼져가던 희망에 불씨가 피어진다. 97년생 고백고백인사로 관심을 받아내자.</p> | <p>50년생 편견을 지우거나 진짜가 보여진다. 62년생 높고 단단한 반대편 기로 넘어가자. 74년생 약속을 미루고 계획을 수정하자. 86년생 자신했던 결과고라기 때려진다. 98년생 실망이 있어도 예의를 갖춰보자.</p> |
| <p>51년생 외양만 보는 실수 현상도 깊어진다. 63년생 시한연애는 남만애 빠져보자. 75년생 가장 낮은 자세 기회기 되어준다. 87년생 손에 쥐어있던 방심은 금물이다. 99년생 은근히 오는 유혹 반감에 맞아주자.</p> | <p>52년생 고급스럽게 절약 정신을 가져보자. 64년생 혼자만의 세계 상상 속에 빠져보자. 76년생 성취감과 보람 만세가 불려진다. 88년생 언제나 그랬듯 차를 지켜보자. 100년생 지분하고 조용히 손쉬운 기다리자.</p> | <p>53년생 주머니 받거나 훈훈함이 오고간다. 65년생 즐거운 천국을 그림으로 그려보자. 77년생 화려함은 없어도 구색을 맞춰보자. 89년생 어리석은 판단 주위 담지 못한다. 101년생 빈 수레 요원함 거시기라 단정하자.</p> |
| <p>54년생 보여지는 모습 아름다워야 한다. 66년생 오래했던 노력이 빛을 발해준다. 78년생 멀리 있는 목표 결실을 걸어보자. 90년생 행복행표 경을 그림으로 그려보자. 102년생 공에 그려던 만남 사람을 속삭이자.</p> | <p>55년생 선물의 크기보다 마음을 담아보자. 67년생 뜨거운 분위기 애정 표현해보자. 79년생 좋은 것 편안한 것도 열심히 누리보자. 91년생 난감한 부위에 이유를 가져보자. 103년생 문제 해결은 빠르게 정확해야 한다.</p> | <p>56년생 애태우던 거래에 도강이 찍혀진다. 68년생 기분 좋은 일이 자주 자주 늘어난다. 80년생 으뜸 솜씨로 경쟁에서 앞서가자. 92년생 중도 포기하는 나쁜 선택이 될 수 있다. 104년생 누구 도움 없이 혼자기 돼야 한다.</p> |
| <p>57년생 귀위 맞추기 대안 백경을 받아낸다. 69년생 쉽다 하는 방심 매운맛을 봐야 한다. 81년생 길고 답답했던 부진에서 벗어난다. 93년생 근거 없는 허세 적을 만들어낸다. 105년생 싸움을 피하는 검쟁이 되어보자.</p> | <p>58년생 착한 이웃에게 한숨이 돌러진다. 70년생 가을꽃 피어지는 소식을 들어보자. 82년생 풍성한 잔치에 박수도 요원하다. 94년생 비교 대상이 아닌 최고가 되어보자. 106년생 자부심과 긍지 무럭무럭 자라난다.</p> | <p>47년생 냉정한 판단 공과사를 구분하자. 59년생 뜻한 바를 이루니 감동 이 배가 된다. 71년생 고마움의 표시 지갑을 열어보자. 83년생 여전한 행형 앞만 보고 달려가자. 95년생 세상이라는 공부아 뜨게 배워가자.</p> |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 | |
|------------------------------------------|--------------------------|
| 광전매일신문 e-mail : gwangmae5678@hanmail.net | |
| 회장이 송암 | 발행인·대표이사 정길화 |
| 편집인 전광춘 | 편집국장 박신주 |
| 2016년 8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 00065 |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 20번길 8, 2층 |
| 대표전화 (062) 525-9775 | <팩스> (062) 528-4566 |
| 회장실 (내선) 210 | 편집국 교 2001 |
| 임원실 (내선) 207 | 정경부 교 2003 |
| 총무국 교 2002 | 사회부 교 2004 |
| 광고국 교 2006 | 사업국 교 2007 |

인쇄 (주)대 한칼라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3,000원 / 14700원

경부고속도로 개통 50년, 대한민국의 생명선을 만들다!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한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대한민국의 생명선이었습니다.
기적의 50년! 희망의 100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